‘아메바 경영’ 일본 교세라와 맞손조선업 특화 맞춤형 시스템 구축  
  
  
  
한화오션 조선소장 이길섭 부사장(왼쪽에서 네번째)이 교세라 마츠나가 카즈히로 사업부장(왼쪽에서 다섯번째)과 계약서에 서명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오션 제공한화오션이 독창적인 경영기법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일본 교세라(KYOCERA, KCCS)사와 손잡고 생산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한화오션은 16일 경남 거제사업장에서 KCCS와 ‘생산혁신을 위한 A-Project Kick-off’ 계약을 체결했다.교세라는 ‘아메바 경영’으로 세계적인 전자 소재·부품·장비 회사로 성장한 기업이다.아메바 경영은 교세라 창업주로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고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이 착안한 경영 관리 기법이다.시간당 채산 극대화를 목표로 조직을 10명 이하 소집단으로 재편하는 방식이다. 조직 내 모든 구성원이 주역이 돼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아메바 경영은 교세라를 시작으로 일본 700여 기업에 도입됐다.한화오션은 생산, 설계, 원가관리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조선업에 특화된 맞춤형 시스템을 도입한다.조선업은 경영 성과 대부분이 현장 생산능률에 따라 좌우된다. 그러나 대다수 현장 기술자는 원가마인드가 부족한 경향이 있어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한화오션 판단이다.이에 조직별 손익 관리 평가 시스템과 손익 관리에 따른 조직별 실적 보상체계를 구축한다.또 전체 임직원 참가형 경영시스템도 도입해 생산성 향상 문화를 정착하고 초격차 원가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한화오션 관계자는 “창의적 생산혁신으로 지속적인 가치를 증대하고 주인의식 강화와 인력 정예화를 목표로 전반적인 생산 체계와 시스템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